거조사 나한대재 "정혜결사 정신 잇길"

팔공산 영천 거조사(주지 태관)는 10월 29일 오백나한상을 모신 영산전(국보 제14호) 앞마당서 나한대재를 봉행했다.

주지 태관 스님은 "거조사는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수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근본도량으로, 보조지눌 스님의 1000년 정혜결사 정신을 이어 자비와 평화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나한대재를 봉행한다"며 "6가지 공양을 올려 정법 실현을 위한 서원을 세우고, 고통서 벗어나 희망의 삶을 이루는 공덕을 쌓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조사 나한대재는 고려시대 국난 극복 등을 기원하며 봉행됐으나 조선시대 이후 맥이 끊어졌다. 거조사는 지난 2005년부터 이를 복원해 매년 봉행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나한대재에 참석한 불자들.

"내적 성장과 전법, 두 마리 토끼 잡을 터"

미타선원 신임 주지 종호 스님

부산 미타선원이 11월 3일 극락보전에서 신임 주지 종호 스님〈사진 왼쪽〉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종호 스님은 "앞으로 신도 조직을 더욱 체계화해 지역 봉사에 앞장, 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하림 스님은 "주지를 맡은 지 11년이 흘렀다. 대나무가 자랄 때도 마디가 있어야 하듯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라며 "교육원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이임사를 전했다.

종호 스님은 1987년 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인천 능인사 주지, 영산정사 주지, 인천불교총연합회 이사 및 인천사암연합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등 맡고 있다.

한편 이날 행복공감평생교육원 개원식도 진행됐다. **하성미 기자**



'대방광' 진리 '불화엄' 으로 장엄

범어사, 11월 1일 '53선지식 천일화엄대법회' 입재

'대방광불화엄경' 을 외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로자나 대광명의 법신을 만난 듯 범어사를 찾은 불자들은 연꽃 모양으로 손을 모아 합장했다. 불자 한 명 한명이 깨달음의 꽃이 되어 부처님을 장엄하는 세상, 〈화엄경〉을 만나는 시간이 범어사서 개최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1월 1일 경내 보제루서 '53선지식 천일화엄대법회' 를 개최하고,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입재법회로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의 특강을 진행했다.

덕민 스님은 먼저 은사인 동산 스님과 일화를 소개하며 화엄경의 진수를 선시에 담아 풀어냈다.

덕민 스님은 "동산 스님께서 화엄경의 진수를 선시로 풀어내 대웅전 주련에 '마하대법왕(摩訶大法王) 수처현청왕(隨處現靑黃)' 을 적어두셨다. 동산 스님의 선풍은 지금도 그대로 전해 내려온다"며 참여한 불자들에게 동산 스님이 설한 그 내용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동산 스님은 금정산의 청풍명월이다. 청풍명월은 주인이 없다. 그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바랑에 지고 다니면 내가 곧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전했다.

스님은 또 신라 신문왕 당시 〈삼국사기〉 내용 중 '만파식적(萬波息笛)' 의 설화에 나오는 '피리' 와 〈화엄경〉의 관계를 설명했다. 신문왕이 국난을 접할 때마다 불어 문제를 해결한 피리는, 곧 화엄경을 근본으로 삼고 나라를 다스린 신문왕의 지혜를 상징한단 것이다.

특히 스님은 "화엄경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몸에 지니듯 기억하고 실천할 때 가정에선 부모 노릇, 나라의 왕은 왕 노릇, 대통령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최순실 사태 관련 정치 상황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 외 경남 일대 타 지역서도 불자들이 찾아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단 기대감을 표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제1회 천일화엄산림대법회를 개최했다. 11월 1~3일 동안 덕민 스님, 무비 스님, 지안 스님 등 대강백의 특강으로 진행된 대법회는 매월 초하루 선지식 초청 화엄경 법석을 이어간다.

덕민 스님 화엄경 강의로 문 열어

천일 동안 매달 초하루 선지식 초청

"화엄십찰로 창건 의미 새길 것"

정의자(76 · 부산 구서) 씨는 "나이가 많아 이 생에 마지막 화엄법회 자리라 생각된다. 더 열심히 다녀보고 싶다. 마음자리를 찾아 평생을 범어사를 다녔는데 이 법석을 통해 나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화엄의 도리를 알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53선지식 천일화엄대법회' 는 범어사서 처음으로 문을 연 화엄경 특별법석이다. 11월 1~3일 동안 덕민 스님, 무비 스님, 지안 스님 등 대강백 스님들의 법석으로 열려, 화엄경 전체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범어사는 매월 초하루 마다 선지식을 초청해 화엄법석을 마련한다.

다가오는 화엄 법석은 11월 29일(음력 11월 1일)에 무비 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지며 회향일에 앞서 13일 동안 연이어 법석이 열릴 예정이다. 회향 법문은 방장 지유 스님이 맡는다. **하성미 기자**

"불교 발생지 옛 가야의 중흥 이끌 것"

법등회, 10월 29일 제1회 3000배 참회대법회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참가자들 법복은 땀으로 젖었다. 다리가 아파 제대로 앉기조차 버겁지만 절을 멈추지 않는다.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며 한배 한배 올릴 때 마다 참가자들은 '참회' 를 마음에 새겼다. 자신들의 참회로 옛 가야 지역 김해에 불교 중흥의 씨앗이 심어지길 발원했다.

'가야불교 중흥을 위한 모임 법등회' (회장 인해, 이하 법등회)는 10월 29일 300여명의 법등회 소속 사찰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경운사서 '제1회 3000배 참회 대법회' 를 개최했다. 참회 대법회는 오후1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1000배 후 20분 휴식하는 방법으로 이어졌다. 개회식은 예불과 함께 회장 인해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발원문 낭독 및 회향사로 마무리 됐다.

참가자들은 3000배 참회 기도를 통해 개인의 참회 뿐 아니라 가야의 위상을 되살리는데 앞장설 것을 서원했다.

박유미(53 · 김해 외동) 씨는 "개인적으론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을 만나는 시간으로, 기도 자체가 참회이며 감사이고 발원이란 심정으로 찾았다"며 "스님들께서 가야 불교가 사장된 현실을 안타까워하셨다. 참회대법회를 통해 불교 중흥에 모두가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등회 참회대법회 동참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회향되며, 가야불교중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법등회는 허왕후가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옛 가야 지역인 김해에 불교 중흥을 이끌고 전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시작됐다. 경운사(주지 해도), 불인사(주지 송산), 바라밀선원(주지 인해), 여여정사(주지 도명), 장유사(주지 해공), 정암사(주지 법상) 6개 사찰이 동참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경운사서 개최된 '제1회 3000배 참회대법회' 서 기도 중인 법등회 회원들

혜원정사, 어르신 위한 나눔 잔치 베풀어

10월 29일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부산 혜원정사(회주 원허)는 10월 29일 연제구 지역민들을 위한 나눔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1993년 시작한 경로잔치는 매년 1200여명이 찾는 마을잔치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나눔 회향의 자리로 거듭났다. 혜원정사는 이날 장학금과 △장수 어르신의 건강 기원 '장수상' △결혼 후 동고동락의 시간을 축하하는 화목상을 수여했다.

장학금은 고산장학재단 고산장학회서 동국대 3학년 법수 스님을 비롯한 대학생 20명, 조정현(김해 임호고 · 1년) 등 고등학생 총 3명에게 전달했다. 이어 혜원정사에서 준비한 장학금을 32명의 지역 학생에게 전달했다.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수상은 이점순 씨와 김달용 씨가 받았으며, 화목상은 김일원 · 박성념 부부, 유칠준 · 류병재 부부가 받았다.

한편 행사에는 회주 원허 스님, 연제구불교연합회장 무관 스님, 이성수 혜원정사 신도회장, 권오공 혜원정사 신도회 수석부회장, 김해영 국회의원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유엔 오케스트라 "사찰 음식은 자비의 공양"

홍법사, 10월 28일 전통사찰문화 체험기회 제공

평화음악회를 위해 방한한 유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국의 사찰문화와 음식에 감탄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0월 28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사찰음식 오찬을 진행했다. 화려한 색채를 담은 50여 가지의 음식이 전시됐으며, 30여 가지 음식을 맛보는 시간이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사찰음식은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음식으로, 모든 생명에 감사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기원하는 음식이다. 건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수많은 생명에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홍법사는 10월 28일 유엔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사찰음식 오찬 기회를 제공했다.

마틴 커펀스 유엔 오케스트라 회장은 "아름다운 홍법사서 아름다운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어 행복하다. 또한 부산 여러 곳에서 만난 행복한 기억을 영원히 간직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성미 기자

"도청 이전, 신도시포교 새 기회"

의성 고운사, 10월 22일 지역대중공사 열어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10월 22일 안동청소년문화센터서 '신도청시대 희망을 주는 불교' 를 주제로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경북도청 신청사 인근에 위치할 포교당 건립방안과 지역 사회 불교 위상 제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지혜의 6개조로 나뉘어 '다종교시대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역할' 과 '신도청 포교당 건립방안과 역할' 에 대해 모둠토론을 전개했다.

보시모둠조 류장희 불교청년회장은 "포교당 건립 시 선방과 연령별 불교기초교육대학을 만들어 운영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지계모둠조는 1인 108보시금 모연을 진행해 불사금을 모으자는 의견을, 인욕모둠조는 공휴일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포교당을 가꿨으면 한단 의견을 개진했다. 정진모둠조는 음력 초하루 법회 등 법회일을 고정하지 말고, 신도와 사찰이 논의해 법회일을 변경하자는 의견 등 제안했다.



10월 22일 열린 의성 고운사 100인 대중공사 단체사진.

노덕현 기자 · 박영애 영주지국지사장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 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